

KWC 2021 수상 미수입 와인 열전 AUSTRALIA II

지난 KWC 2021에서 수상한 와인 중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미수입 와인이 있다. 특히 호주 와인은 한국 시장에서 트렌디한 매력을 가진 와인으로 손꼽히지만,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보석 같은 와인들이 너무나 많다. KWC에서 인정받은 미수입 와인을 하루빨리 한국 시장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호주 미수입 와인 열전 2탄을 231호에 이어 시작한다.

글 임주희 사진 및 자료제공 장영수, 각 와인너리 홈페이지



페퍼그린 에스테이트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서던 하일랜드(Southern Highlands) 지역에 있다. 서던 하일랜드 지역은 암석이 많은 양토로 되어 있다. 해발 700m에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지형과 선선한 기후를 보인다. 특히 이들은 기복이 심한 경사면에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어서 최상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차가운 기후가 주는 포도의 풍미가 와인에 담겨 감각적인 와인을 빚는다. 피노 누아, 쉬라즈, 까베르네 소비뇽과 스파클링, 로제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와인너리에서는 질 좋은 올리브를 직접 재배해 올리브 오일을 만들기도 한다.

와인너리 정보 <https://peppergreenestate.com.au/>

PepperGreen Carbernet Sauvignon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특징** 약간의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를 띤다. 붉은 베리류의 과실 향과 제비꽃, 풀내음이 어우러져 우아한 아로마를 가져온다. 섬세한 탄닌이 조밀하게 느껴지며 스파이시 오크, 말린 허브의 뉘앙스도 은은하게 피어오른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풍미가 테이스팅의 즐거움을 준다. 페퍼그린 까베르네 소비뇽은 KWC 이외에도 세계 유수의 와인 챌린지에서 수상 내역을 보유하고 있다.

PepperGreen Estate

페퍼그린 에스테이트



Sister's Run

시스터스 런



SISTER'S RUN

"The truth is in the vineyard but the proof is in the glass."
ELENA BROOKS, WINEMAKER

맥라렌 베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 시스터스 런. 젊고 재능 있는 와인 메이커 엘레나(Elena)와 함께 개성 있는 와인을 빚고 있다. 그녀는 평소 와이너리에서 일할 때는 작업 부츠를, 행사에 참석할 때는 하이힐을 신는데, 어느 날 파티에서 와이너리로 급하게 돌아오는 길에 셀러 직원이 "Run Sister Run"이라고 외쳤을 때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작업 부츠로 갈아 신고 일터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시스터스 런의 심볼은 부츠와 하이힐 한 짝이 되었다. 이들 와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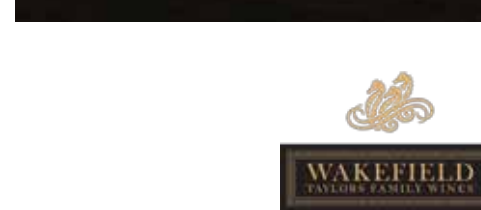
와이너리 정보 <https://sistersrun.com.au/>

Sisters Run Cow's Corner GSM

생산지 바로사 밸리 **품종** 그르나슈, 쉬라즈, 마타로(무르베드르) **특징** 진한 퍼플 레드 컬러를 띠는 미디움 바디 와인이다. 신선하고 밝게 나타나는 붉은 베리의 과실 향과 감초, 야생화의 향이 지배적이며 은은한 오크 향이 길게 이어진다. 그르나슈와 쉬라즈를 블렌드해 특유의 경쾌함이 묻어난다.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어 오프너 없이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편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가니쉬를 곁들인 스테이크, 파스타 등과 좋은 조화를 이룬다.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웨이크필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웨이크필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은 1969년 빌 테일러(Bill Taylor)가 자식들과 함께 클레어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훌륭한 와인은 포도밭에서 만들어진다는 일념으로 와인을 빚고 있으며 현재 클레어 밸리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12개의 세부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레인지에서 선보이는 우아한 레드 와인과 질 좋은 화이트 와인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4년간 다수의 수상 와인을 배출해 온 이들은 KWC 2021에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와이너리 정보 <https://www.wakefieldwines.com/>

Masterstroke Shiraz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쉬라즈 **특징** 입안을 채우는 감미로움이 매력적인 와인이다. 잘 익은 체리와 자두의 풍미와 함께 미묘한 꽃 향이 어우러지며 풍부한 오크 터치를 바탕으로 바닐라 향이 총총하게 느껴진다. 드라이한 탄닌이 좋은 마무리감을 주며 복잡하게 느껴지는 풍미가 인상적이다. 와인의 아로마와 풍미가 풍부해서 구운 양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파스타 등과 마리아주하면 더욱 맛있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Zonte's Footstep

존테스 풋스텝



2003년, 와인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설립한 존테스 풋스텝. 오래전 애플레이드에서는 잔테(Zante) 포도를 심었는데, 이 포도에서 영감을 받아 잔테의 a를 o로 바꿔 존테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역사에 발자취를 이어 가겠다는 포부가 담긴 듯하다. 이들의 와인을 보면 눈에 띄는 독특한 라벨이 과감하게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을 선보이며 무엇보다 자유분방한 청춘의 행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와인을 빚고 있다. KWC 2021에서는 총 3개의 와인이 메달을 획득했다.

와이너리 정보 <https://www.zontesfootstep.com.au/>

Blackberry Patch Cabernet Fleurieu

생산지 플레리우 페닌술라 품종 까베르네, 템프라니오 특징 진한 퍼플 레드 컬러를 띠는 비건 와인이다. 생동감 넘치는 카시스와 검은 자두, 잘 익은 블랙 베리, 시가 박스 향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며 최소한의 여과로 와인을 빚어 과일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와인을 머금으면 동근 탄닌이 입안을 감싸며 긴 여운을 준다. 가벼운 스낵, 신선한 치즈, 올리브 절임 등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려 편안하게 마시기 좋다.

VALLEPICCIOLA TOSCANA

이태리 토스카나의 심장부 발레피치올라에서 생산된
명품 끼안티 와인



Pievasciata I.G.T.
피에바시아타

Persimo I.G.T.
퍼르시모

Chianti Classico
Riserva D.O.D.G.
끼안티 클래식 리제르바